

# “문화재 환수 민족혼 되찾기”

한국JC(청년회회소)는 지난 4월15일부터 7월중순까지 전국 2백38개 지구에서 '해외유출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쳤다. 한국JC는 서명·모금운동 결과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32만1천6백88명, 모금액은 7월현재 2천1백96만7천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 민족공동체 회복의 길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모두 6만4천8백52점, 각국별 보유현황을 보면 일본이 2만19천6백37점, 미국 1만4천5백62점, 영국 7천1백89점, 독일 5천2백46점, 러시아 2천5백60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1994년말 현재, 외무부)

한국JC중앙회 이경훈 회장은 "민족공동체 회복과 우리 역사와 전통을 되찾는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펼친 것은 국민에게 우리의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회장은 문화재 환수에 남다른

위상을 보여주면서 대외적으로 한국의 당당한 기상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 사업을 펼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될 자료를 배포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고, 결의대회 및 가두서명운동은 4월15일에 국내 3백65개 지구 중 2백38개 지구에서 시작되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 서울에서 4월15일 오후5시~5시30분까지 상업은행 명동지점 앞에서 서울지구JC회원과 약2백명과 SBS '이 여자'가 사는 법' 출연진들이 참가하여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이날 서명 인원이 1만1백명에 달해 무척 고무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대회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THS' 담배포장갑 5백만장에 문화재 환수운동 홍보용 도안을 인쇄하



김경훈

## 수요 인터뷰

한국JC 이경훈 중앙회장

## “해외 유출 6만5천여점 제자리에 놓아야죠” “서명·모금 전국민 동참을”...80%가 불교문화재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치게 된 배경과 의의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의 대다수가 적법한 절차보다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함축된 것이기에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는 일은 민족정신을 바로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해 당해국(國)에 제소를 하거나 기타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단지 1965년도에 한일문화협정체결에 따라 일본에서 환수한 2천7백50건이 전부이고, 최근에 일본 목지가 기증한 3백77점이 여기에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약탈해 간 미술품 28점을 반환한 일이 있고, 현재 그리스, 터키, 이집트 등이 미국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50주년을 맞아 한국JC가 펼친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운동'은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대표 조직의

여 전국에 관매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외유출문화재의 현황과약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 이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해외유출문화재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집니다. 현재도 상당수의 문화재가 밀매되는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문화재가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출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정부나 국공약단체가 장기적인 인목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소장자들은 문화재 환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운동이 해당 문화재 소유자들에게 많은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를 찾는 일은 후손들이 조상의 잃어버린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 미망히 이뤄져야 할 사업입니다. 이는 마치 잃어버린 우리 조국을 찾는 것과도 같은 일이지요.

-구체적인 문화재 환수 방법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정부의 역할과 불교계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환수하는 용어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한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법상 강제력도 없고 다만 협조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프랑스로 방문에서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문화재를 기증받거나 장기 임대, 교환전시, 소더비경매 등을 통한 구입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법적 강제력 없어 애로

하지만 이러한 환수 노력보다는 국내의 소재 문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밀수 등의 방법에 의한 유출 및 훼손을 막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대국민 홍보와 정부에 대한 압력 등이 있겠지요.

-문화재 환수의 국제법적인 실패가 많은지요.

▲현재 유네스코에 문화재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지금 유럽 각국에서도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려고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유출이나, 탈취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나 기준이 없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회장님께서서는 개인적으로 문화재의

바라는 점은 없으신지요.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이땅에 정착하여 수송, 토속화, 발전시켰던 문화의 꽃은 불교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계는 찬란하고 고귀한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유·무형문화재들을 자체적으로 보존해 5천년 역사에 각인된 조상들의 숨결을 후손에게 넘겨줘야 하겠습니까.

-국내 문화재의 도난, 파괴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대책도 있을텐데요.

▲외국에서는 타문화의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사와 고층철도 건설에서 나타나듯 강력한 법적 규제없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할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서명록과 모금액은 지구·지방JC에서 취합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금액 및 서명록을 직접 전달 때에는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의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재경 기자

## 나의 수행일기

### 김덕수 <경주농협 불자회장>

나에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게 해 준 경주불교학생회는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진 신 행단체였다. 1968년 그때만 해도 대다수의 불교학생회가 그랬듯이 겨우 10~20명의 회원들이 기차역 대합실 드나들 듯하며 오랜 세월속에 빛바랜 단청처럼 퇴색되어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토요일 오후에 가지는 법회에는 한사람 두사람씩 와서는 법당에 둘러 삼배만 하고 다시 나와선 주춧돌 한바탕 행하니 가곤 하였다. 포교당에 상주하시는 주지스님께서 절을 비우는 등 청소년포교에 관심이 없었으니 누구에게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배워 익히겠는가? 이러한 현상은 이제나 그제나 여전한 것 같으니 말로만 포교, 전법은 허공계와 증생계에 메아리칠 뿐이다.

이때부터 경주불교학생회 토요일 법회에는 1백~2백명의 학생회원이 참석하여 한국불교의 고창이요, 민중불교의 원천인 신라시대로 되돌아가서 이 땅에 다시금 불교 중흥을 이루는 듯 하였다.

## 칠불암서 입시공부, 포교 원세워

세상 어디나 부처님 마을... 불교학생운동 대물림

그래도 심심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 정기법회, 수련대회 주관 및 참가는 그러저럭 이뤄지고 있으나 부처님 손바닥의 일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던 중 1970년도 여름방학때 경주 남산 칠불암(七佛庵)에 '대입예비고사 준비 학생을 위한 공부방'이 마련되었다. 한달동안 지도하시는 선배 두분과 후원하는 회원 3명 그리고 공부를 유지하며 대중생활을 하였다.

108계단을 뚫달아 오르내리면서 슬바람 소리와 함께 부처님 나라에 살다가 내려오던 날,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침체된 불교학생회를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있으며, 매일 음력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 저녁이면 경주 남산 불자회를 순례하면서 '보름기도'를 올리고 있다.

20년도 훨씬 넘은 때에 이루어진 서원은 계속 대물림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믿고 의지하는 돈독한 신심에서 시작된 돈 안드는 佛事인 포교사업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처님 마을이고 이 세상 누구라도 부처님 이웃이 될 때까지 우리의 원은 끝남이 없을 것이다.



경주불교학생회 부흥을 서원하던 때의 필자. 경주공고 체육대회에서 응원단장을 맡아 동료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여학생으로 분장한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와함께 안홍부 거사님은 중고등학교를 위한 영어, 수학강좌를 개설하여 불교학생회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주 일요일 새벽에는 고척지(古蹟地)참소를 실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도 길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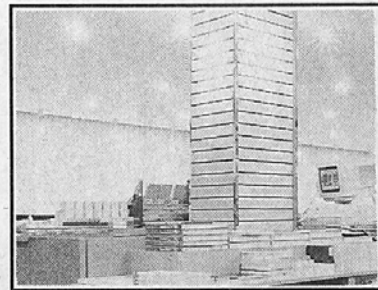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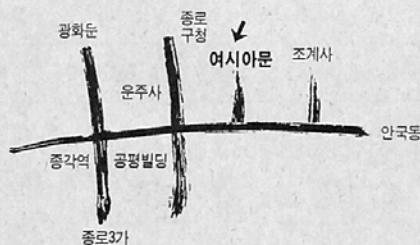
또 신라문화재 때 도 실러문화재 때 도 탑돌이를 하는데 불교학생회원들 모두가 법복을 맞춰 입고 절 만(卍)자 쓰인 고깔을 쓰고 북소리 묵탁소리에 맞춰 탑돌이를 하였다. 매년 12월31일에는 경주박물관 봉덕사 신중전(神中殿) 앞 야외에서 불교학생회원들의 춤을 타조하였다.

그 후 경주불교학생회는 부처님오신날 기념 꽃리본을 제작하여 사일초파일 절에 오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달아 드려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보시금으로 학생회기금을 모아놓고 있으며, 매일 음력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 저녁이면 경주 남산 불자회를 순례하면서 '보름기도'를 올리고 있다.

## 불독가,득·반항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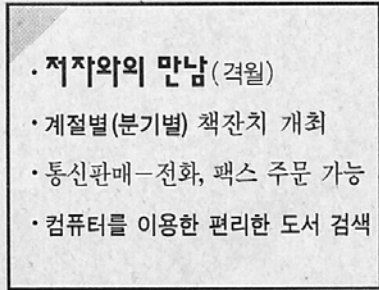
##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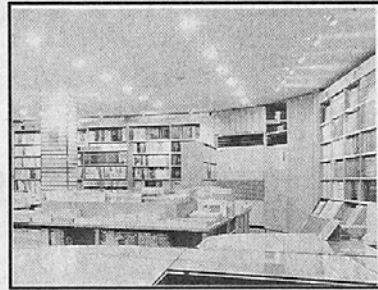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회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1.부터 시행)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취 행사 우선 초대